

순천에 트로트 가수 '설운도길' 생긴다

황전면 상평마을에 등지 마련
내달 4일 설운도 초청 현판식

순천 황전면에 트로트 가수 설운도의 이름을 딴 '설운도길'이 생긴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설운도씨는 1999년 지인의 소개로 황전면 상평마을에 4만㎡ 규모의 땅을 샀다. 설씨는 이 곳에 집을 짓고 서울과 순천을 오가며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평마을 주민들은 설씨가 집을 짓기로 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지난해 10월에는 황전면 명예민으로 위촉돼 주민들과 2년째 인연을 맺고 있다.

박홍과 순천 황전면장은 "20여년 전 매입한 땅으로 막상 와보니 돌산이지만, 설운도씨의 취미인 수석이 좋고 자연건강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안다"며 "요즘 트로트열풍이 불고 있는데 설운도씨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상평마을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운도씨도 올해 초 하석 시장과 함께 이 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순천에 오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며 순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순천시는 상평마을 주민의 뜻에 따라 상평마을 입구에서 설씨의 주택까지 2.3km에 이르는 도로를



가수 설운도가 지난 6월 순천시 황전면 상평마을을 찾아 하석 시장, 마을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순천시 제공>

'설운도길'로 명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상평마을은 순천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25km 가량 떨어진 곳이며, 면소재지 '괴목(槐木)' 삼거리에서 35번 시내버스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야 닿는 곳이다.

'설운도길'은 법정 도로명이 아니라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명예도로명으로, 표지판 색깔도 관광지를 알리는 갈색으로 만들어진다. 순천시는 다음달

4일 상평마을에서 설씨를 초청해 명예도로 현판식과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설운도씨가 순천과 귀한 인연을 맺게 돼 도로에 이름을 넣기로 했다"며 "설운도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광양항, 중·러·유럽 'Y-루트' 전진기지로 육성"

여수광양항만공사 창립 9주년 기념식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는 창립 9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광양 월드마린센터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공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9년 간의 성과와 변화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임직원들과 공유했다.

또 여수광양항을 산업중핵 항만(Industrial Core Port), 스마트 항만(Smart Port), 해양관광중심 항만(Tourism Port)으로 육성한다는 'PORT IST 3개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공사는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여수광양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내·외부 인사 6명에게 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여수광양항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 어려움에 처한 항만환경을 직시해야 한다"며 "공사의 역



지난 19일 광양 월드마린센터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여수광양항만공사 창립 9주년 기념식에서 차민식(사진 가운데) 사장 등 참석자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량을 결집해 여수광양항이 중국-러시아-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Y-Route(와이루트)의 전초기지

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이달말까지 연장 지원

광양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5월13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등 11개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 예술인이다.

전남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과는 별개로 추가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 직장보험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제외된다.

광양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 증명확인서의 소요 기간을 감안해 3차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연장 접수는 시정 문화예술과에서만 가능하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50만원은 광양사

랑상품권 카드로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이기섭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의 취소·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6·7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PC방, 노래방, 성인게임방, 종교시설,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50만 원의 광양사랑상품권을 지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수재민에게 용기를" 온정 손길 잇따라

구례농협,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용자

구례농협협동조합(조합장 조재원)은 수해지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씩을 1년간 무이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자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0일간이며 읍·면사무소에서 수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례농협 본점이나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담보물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이며, 이자는 받지 않는다.

구례농협은 또 지난 18일부터 농기계 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경운기·예취기 등 350여대의 고장난 농기계를 점검·정비했다. <사진>

구례읍의 한 조합원은 "그렇지 않아도 자금이 필요했는데 농협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주다니 고맙



다"면서 "수해 복구가 시급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원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부산 수영구, 구례서 수해복구 구슬땀

부산 수영구는 지난 19일 강성대 수영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45명이 구례 수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와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구례 5일시장에서 쓰레기 정리와 진흙 제거 등 침수 주택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사진>

수영구는 또 3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생수와 컵라면, 즉석밥 등 1000여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보내왔다.

강성대 수영구청장은 "수영구와 구례군은 지난 1999년 자매결연을 맺어 21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수해로 인해 상심이 큰 구례군민께 18만 수영



구민을 대신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힘이나마 수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 오곡면 바르게살기협, 쌀 180포 전달

곡성군 오곡면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박충록)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전해달라며 320만원 상당의 10kg들이 쌀 180포를 오곡면에 기부했다. <사진>

섬진강을 끼고 있는 오곡면은 이번 폭우로 주택 붕괴 및 침수 피해가 많았다. 수재민들이 의식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오곡면위원회 회원 31명이 뜻을 모았다.

박충록 회장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수재민



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세일골

"범죄 신속 대처로 주민 일상 지켜줄 것"

김진천 고흥경찰서장

"범죄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로 주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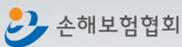
지난 19일 제69대 고흥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김진천(56) 총경은 "한려수도의 중심, 우주의 꿈이 시작되는 고흥에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신임 서장은 "경찰은 전례 없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도 지역治安 유지라는 시대적 사명에 직면해 있다"며 "주민 안전에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 출신인 김 서장은 광주 서강고를 졸업했다. 1986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전남청 정보2계장, 광주청 경비계장, 전남청 정보과장을 역임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